



## 한국인 국제결혼의 설명틀과 혼인 및 이혼신고자료의 분석\*

김 두 섭\*\*

이 논문은 혼인 및 이혼신고자료를 활용하여 1990년 이후 한국인의 국제결혼 증가추이와 이에 관련되는 사회인구학적 특성들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이 논문은 국제결혼의 증가를 혼인력 변화의 한 단면으로 규정하고 그 인과구조에 관한 설명틀을 제시하고 있다. 국제결혼의 급격한 증가를 초래한 주요 원인으로는 출산력의 지속적인 저하, 출생성비의 상승, 농촌-도시 인구이동, 양성평등 관념의 확산과 세계화가 강조되었다. 이 논문의 분석에 사용된 주요 자료는 1990~2004년 혼인신고자료와 2000~2004년의 이혼신고자료이다. 이 논문은 국제결혼한 부부들의 연령, 초혼 여부, 교육, 직업, 거주지 등의 특성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그리고 이혼한 부부의 인구학적 특성에 관한 분석도 이루어졌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는 국제결혼의 다양성이 그동안 간과되어 왔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다. 한국 남자와 여자의 국제결혼은 부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서 확연하게 대비된다. 그리고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에 따라 서로 커다란 차이가 발견된다. 혼인적령인구의 성비불균형으로 인하여 혼인시장에 가해진 압박에 의해 촉진된 국제결혼은 주로 한국 남자와 중국, 동남아시아 및 구소련연방 국가의 여자와의 결혼에 적용될 수 있다. 이에 비해 한국 남자와 선진국 여자의 결혼이나 한국 여자의 국제결혼은 가치관의 변화와 세계화에 따른 인적교류의 확대에 기인하는바 크다고 판단된다.

**핵심단어:** 국제결혼, 외국인 배우자, 혼인적령인구, 혼인신고, 혼인력, 혼인이주, 이혼

\* 이 논문은 2005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5-078-BS0004). 혼인/이혼신고자료와 관련문헌의 수집 및 정리과정에서 도움을 준 이지연 박사, 박효준 연구원, 유삼현 군에게 감사드린다.

\*\* 한양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I. 머리말

민족구성에 관한 한국은 매우 동질적인 사회로 간주되어 왔다. 결혼에 관련된 규범이나 가치관도 동족간의 결혼(族內婚, endogamy)을 전제로 하거나 지원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였다. 다른 민족의 배우자와 결혼한 당사자와 이를 통해 태어난 혼혈 2세들은 차별과 경멸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한국으로 외국인의 혼인이주가 이루어지며 사회적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초반부터라고 할 수 있다. 당시 통일교도와 결혼하여 한국으로 이주해 들어온 외국인은 주로 일본 여성들이 주축을 이루었다. 국제결혼이 상당 규모로 이루어지고, 이러한 경향에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초반부터이다. 그러나 이 시기에 이루어진 국제결혼의 상당 부분은 다른 민족의 배우자와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한국과 중국의 외교관계 수립(1992년)을 계기로 중국 국적의 조선족 여성이 한국 농촌의 노총각과 결혼하여 한국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주종을 이루었다.

한국 남자와 여자의 국제결혼은 그 성격과 사회경제적 특성에 있어서 확연하게 대비된다. 한국 남자의 국제결혼은 1995년 이후 그 빈도에 있어서 한국 여자의 국제결혼보다 월등하게 많았으며, 이러한 양상은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1990년대 말에 이르기까지는 외국인 여자배우자의 국적이 중국과 일본, 그리고 외국인 남자배우자의 경우에는 일본과 미국에 절대다수가 집중되어 있었다.

한국인 국제결혼의 양상은 2000년대에 이르러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게 된다. 우선, 국제결혼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통계청(2006)의 혼인통계에 의하면, 1990년에는 외국인과의 결혼이 4,710건에 불과하였으나, 2004년에는 35,447건으로 무려 7.5배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해에 신고된 전제 결혼 건수에 대한 비율도 1.2%에서 11.4%로 높아졌다. 아울러 세계화 및 국제교류의 활성화로 인하여 한국인과 결혼하는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이 다양해졌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국제결혼의 증가와 배우자 국적의 다양화는 비단 한국에만 국한되는 현상이 아니다. 대만, 일본, 싱가포르 등의 아시아 국가에서도 1990년대 이래 비슷한 현상이 관찰된다. 이들 국가는 중국을 비롯하여 베트남, 필리핀 등의 동남아시아 국가로부터 노동인력과 아울러 젊은 신부들이 대규모로 유입되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Goodkind, 1997; Piper, 2003; Tsay, 2004; Yang and Liu,

2005). 특히, 대만의 경우 2003년 현재 외국인 배우자와의 국제결혼이 전체 혼인신고의 32%를 점유하기에 이르렀다(Tsay, 2004).

한국을 비롯한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 국제결혼이 급증하는 현상은 앞으로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다른 민족 배우자와의 결혼이 대 규모로 이루어지게 되면 여러 가지 사회적 파급효과를 초래하기 마련이다. 이는 한국처럼 민족적 동질성을 유지해온 사회에서는 특히 그러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 이르러 많은 국가들에서 외국인 배우자의 과도한 유입에 대한 통제 여부, 시민권의 부여, 문화적 적응의 지원 등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서로 다른 민족 간의 결혼과 혼인이주가 학문적인 관심의 대상으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에 이르러서이다. 일본과 대만 등으로 유입된 동남아시아 여성들을 대상으로 노동이주자와 동시에 혼인이주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Piper, 1999, 2003; Yu, 2001; Piper and Roces, 2003; Hsia, 2004). 성의 상품화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을 송출하는 사회에 대한 사회인류학적 연구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Salt and Stein, 1997; Wang and Chang, 2001; Duong et al., 2005; Thi, 2005). 이들이 유입되는 사회의 혼인시장의 혼란에 관한 인구학적 연구도 주목을 끈다(Tsay, 2004; Yang and Liu, 2005). 또한, 미국과 같은 다인종 국가에서는 서로 다른 인종과 종교집단 간의 결혼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Spickard, 1989; Qian, 1997; Moran, 2001; Root, 2001; Jacobs and Labov, 2002; Romano, 2003; Rosenfeld and Kim, 2005).

국내에서도 외국인 혼인이주자의 결혼과정과 결혼 후의 갈등과 적응을 주제로 하는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김숙자, 1998; 강유진, 1999; 윤형숙, 2004a, 2004b; 이해경, 2005). 이들의 일부는 여성학적 관점에서 성의 상품화, 가정폭력 등 국제결혼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하다(홍기혜, 2000; 박현정, 2004; 윤정숙·임유경, 2004).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혼인이주자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연구도 상당수에 달한다(김애령, 1998; 민경자, 2003; 이윤애, 2004;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2005). 그러나 이들은 대부분이 소수의 국제결혼가구에 대한 면접조사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국제결혼에 관한 대규모 자료를 분석한 인구학적 연구는 지금까지 한국에서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소규모의 표본조사들이 행해졌을 뿐, 국제결혼한 부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대한 총체적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이다. 국제결혼이 급증하는 사회인구학적 요인과 과정에 대해서도 세밀하고 체계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또한, 국제결혼에 대한 효과적인 사회정책의 수립을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자료가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되고 분석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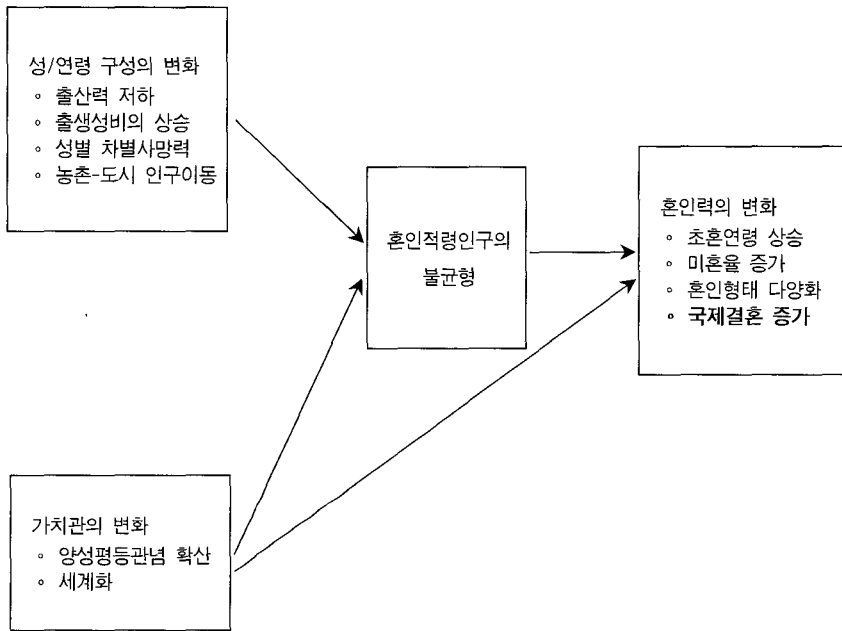
이 논문은 한국인 국제결혼의 증가추이와 배우자들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이를 위해 우선 국제결혼의 증가를 성/연령 인구구성의 변화와 가치관의 변화로 설명하는 틀이 제시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한국사회의 국제결혼 증가를 초래한 원인으로 다음의 다섯 가지 요인 즉, 출산력의 지속적인 저하, 출생성비의 상승, 성 선택적 농촌도시 인구이동, 양성평등 관념의 확산, 그리고 세계화의 역할이 강조된다. 이 연구의 경험적 분석을 위해서는 통계청의 혼인 및 이혼통계의 전수자료(全數資料)가 활용된다.<sup>1)</sup> 분석대상에는 1990-2004년 기간에 신고된 모든 국제결혼이 포함된다. 이 논문은 한국 남자와 여자의 국제결혼이 그 성격과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있어서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를 대비시켜 규명하는데 분석의 초점을 맞춘다. 또한 2000~2004년의 이혼신고자료를 활용하여 이혼한 부부의 인구학적 특성에 관한 분석도 시도된다.

## II. 혼인력 변화와 국제결혼 증가의 인과구조

### 1. 성/연령 인구구성의 변화

결혼할 배우자를 정하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초부터 한국을 비롯한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 거의 동시에 국제결혼이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면, 이의 상당 부분은 사회구조적인 요인으로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국제결혼의 급격한 증가는 결국 혼인적령인구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초래된 혼인력(nuptiality) 변화의 한 단면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림 1>에는 혼인력 변화와 국제결혼 증가의 인과구조에 관한 설명틀이 제시되어 있다.

1) 혼인통계는 결혼한 부부가 전국의 읍·면사무소, 시·구청 및 재외공관에 제출한 혼인신고서의 인구동태항목을 집계한 자료이며, 따라서 혼전 동거 등의 사실혼 관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림 1〉 혼인력 변화와 국제결혼 증가의 설명틀

혼인적령인구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는 사회구조적 요인은 크게 두 가지, 즉 성/연령 인구구성의 변화와 가치관의 변화로 구분된다. 그리고 성/연령 인구구성 변화의 원인으로는 다음의 네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1) 출산력 저하; 2) 출생성비의 상승; 3) 성별 차별사망력; 4) 농촌-도시 인구이동.

첫째, 출산력의 급격하고 지속적인 저하는 혼인적령기 남녀인구의 균형에 영향을 미친다. 한국의 출산력은 1960년대 초반 이후 다른 나라에서 그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급격히 저하하여 1983년에 합계출산율이 2.1인 대체수준에 도달하였고, 2004년에는 합계출산율 1.16로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초저출산 상태에 진입하였다. 출산력이 지속적으로 급격하게 저하하면 연도별 출생코호트의 규모가 점점 작아지게 마련이다. 예를 들어, 1970년의 출생아수는 100.7만 명이었으나 2004년에는 그의 47.3%에 불과한 47.6만 명으로 감소하였다(통계청, 2006). 지난 34년의 기간 동안 출생아수가 평균적으로 매년 1.6%씩 감소한 셈이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남자가 자신의 나이보다 3-4년 아래의 여자배우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특정한 연령에

대해 선택성을 지니는 인구이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출산력의 급격하고 지속적인 저하는 해당 출생코호트가 혼인적령기에 이르렀을 때 여자인구가 남자 인구보다 작아지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출생성비의 상승은 혼인적령인구의 남녀불균형을 초래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1980년대 중반 이래 태아의 성을 판별하는 의료기술이 전국적으로 보급됨에 따라, 남아의 선별출산과 여아의 인공임신중절로 인하여 출생성비가 매우 높아졌다. 출생성비는 1993년과 1994년에는 115를 상회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 후 정부의 적극적인 성감별 억제,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여성지위의 향상에 힘입어 출생성비는 지속적으로 낮아졌으며, 2004년에는 108.2로 집계되었다(Kim, 2004a, 2004b; 통계청, 2006).

높은 수준의 출생성비와 아울러 출생아수의 감소추세가 이어지고 남자의 혼인연령이 여자보다 높게 유지되면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혼인적령기에 도달하는 남자인구의 규모는 여자인구보다 심각하게 커지게 된다. 예를 들어 남자와 여자의 초혼연령을 각각 26-30세와 24-28세로 가정할 때, 1995년에 101.9로 비교적 균형상태를 유지하던 혼인적령인구의 성비가 2000년에는 110.5로 높아졌으며, 2010년에는 120.1에 도달할 것으로 추계된다(통계청, 2006). 이처럼 혼인적령기의 남자인구가 여자인구를 현저하게 초과하는 상태가 지속되면, 배우자 선택과정에서 과부족현상이 나타나 초혼연령을 상승시키고 미혼율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특히 배우자 선택에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남자들은 결혼 시기가 늦어지거나 독신자로 남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그 여파로 국제결혼이 늘어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셋째, 남녀간 사망력의 편차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장기간 지속되면 혼인적령인구의 남녀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남자의 사망력 수준은 거의 모든 연령층에서 여자 사망력보다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한국에서는 지난 40여 년간 경제발전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사망률이 꾸준히 저하하였다. 조사사망률은 2004년 현재 1천 명당 5.1로 선진국의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영아사망률도 1955-1960년에는 100명 수준이었으나 1990년대 중반에 이르면 10 이하의 낮은 수준에 도달하였다(권태환·김두섭, 2002). 그리고 지난 40여 년간의 지속적인 저하과정에서 사망률의 남녀간 격차가 점차 축소되어 전체인구나 혼인적령기의 성별 인구구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뚜렷한 징후가 발견되지 않는다. 특히 유아 연령층의 경우에는 사망자의 절대수가 작기 때문에 성비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남녀의 어느 한 쪽에 선택적인 인구이동 역시 혼인적령인구의 남녀균

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구이동은 사회의 발전단계나 문화의 특성에 따라서 성별 선택성을 지닌다. 대규모의 인구이동이 사회구조적인 요인에 의하여 성 선택성이 커지면, 지역에 따라 성비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고 혼인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난 1980년대 후반 이래 농촌지역에서는 초혼연령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노총각이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해당 연령층 전체인구의 남녀불균형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주로 산업화와 도시화의 과정에서 농촌지역의 젊은 여자인구가 대규모로 도시로 빠져나감에 따라 농촌지역에서 혼인적령기 남녀인구의 균형이 깨어진 데 주로 기인하는 것이다.

국제인구이동이 혼인적령인구의 성비 불균형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개척적 성격을 지닌 국제이동에는 젊은 남자가 많이 참여하게 된다. 이로 인한 성비불균형은 출발과 도착 지역 모두에서 남녀의 초혼연령을 상승시킬 수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과거 화교들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많이 발견된다. 그러나 한국 인구는 195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하여 국제이동이 비교적 미미한 ‘폐쇄인구(closed population)’의 성격을 유지하여 왔다. 따라서 국제인구이동이 한국 혼인적령인구의 남녀 균형에 의미있는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는 판단되지 않는다.

## 2. 가치관의 변화

이 논문은 국제결혼의 최근 증가추이가 양성평등 관념의 확산과 세계화로 인한 가치관의 변화와도 관련이 있다고 가정한다. <그림 1>에 제시된 것처럼, 양성평등관념의 확산과 세계화 추세에 따라 젊은 여성들이 결혼을 연기하거나 회피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이에 따른 혼인시장의 압박은 국제결혼의 증가를 포함하여 혼인력 변화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아직 결코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지만, 한국에서는 지난 20여 년간 여러 분야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의 감소, 여성지위의 향상과 아울러 양성평등 관념이 널리 확산되었다. 그러나 결혼 이후의 가족생활에 관련되는 성 역할에 관해서는 아직도 엄격한 차별이 존재한다(McDonald, 2000, 2002). 한국의 젊은 여성들은 결혼을 하면 자신의 일과 자아실현을 희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들의 인생에서 결혼을 과거와 달리 ‘필수 과정’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선택 사양’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높은 교육을 받고 경제적 자립능력을 지닌 젊은 여성들일수록 결혼을 연

기하거나 회피하는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김두섭, 2005; Kim, 2005). 양성평등 관념의 확산에서 비롯된 젊은 여성들의 이러한 경향은 결국 혼인적령인구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혼인시장에 대한 압박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 논문은 혼인력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외생변수(exogenous variable)의 하나로 세계화를 가정하고 있다. 최근에 이르러 세계화의 거대한 흐름에 따라 국경을 초월하여 자본, 정보와 인적 자원의 이동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세계화에 따른 경제적 구조조정과 고용기회의 변화, 인터넷과 범국가적 대중매체의 공유, 여성지위의 향상은 결혼에 관한 규범, 가치관과 태도를 변화시키는데 강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젊은이들이 결혼을 연기하거나 회피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그림 1>의 모형은 가치관의 변화와 혼인력 사이의 직접적 인과관계를 혼인적령인구의 불균형을 통한 간접적인 인과적 흐름과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혼인적령인구의 불균형을 배제하고 이루어지는 인과관계의 직접적 흐름은 특히 한국 여자의 국제결혼 증가추이를 설명하는데 필요하다. 여성지위의 향상, 여권의 확대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와 아울러 세계화에 따른 국가간 인적교류의 확대는 국제결혼의 증가를 포함하여 혼인력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촉진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판단된다.

개인적 선호나 취향의 충족, 그리고 전통적 권위로부터의 자유와 같은 가치관이나 태도는 결혼의 배우자를 정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한국에서는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경제적 자원에 대한 친족 중심의 지배체제가 현저하게 약화되었다. 따라서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그들의 부모 세대에 비해 혼인 시기, 배우자의 조건, 혼인 절차 등에 관련되는 전통적 규범과 가치관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아울러 세계화의 추세에 따라 외국인과의 접촉기회가 많아졌다.<sup>2)</sup> 국제결혼에 대한 거부감도 현저하게 약화되고 있다(설동훈 외, 2005).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한국 젊은이들의 외국 유학, 방문 및 경제활동의 기회가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저개발국의 젊은이들이 노동을 목적으로 한국사회로 이주하는 것이 보다 용이해진 것도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국가 간 인력교류가 확대되고 체류기간이 길어지면 이들의 혈연, 지연과 학연을 연결망으로 활용한 국제결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높

2) 예를 들어, 주민등록된 외국인은 1992년에 6.6만 명에 불과 하였으나, 2000년에 24.4만 명, 2004년에는 46.9만 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통계청, 2006). 현재 한국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규모는 18.8만 명으로 추산된다. 또한 2004년에 한국에 정규입국한 외국인의 규모는 493.0만 명에 달한다(법무부, 2006).



아진다. 그리고 저개발국으로부터 노동인력의 유입이 이루어지면 이러한 연결망을 활용하여 이들의 고향이나 출신국가로부터 혼인이주가 이루어지게 되고, 시간이 경과할수록 이미 국내에 들어와 있는 노동이주자와의 국제결혼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향이 강해진다. 결과적으로, 양성평등 관념의 확산과 세계화의 거대한 흐름은 국제결혼의 증가를 포함하여 혼인력의 변화를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할 수 있다.

### 3. 혼인력의 변화양상

이 논문은 국제결혼의 증가를 성/연령 인구구성의 변화와 가치관의 변화로 초래되는 혼인력의 다양한 변화양상의 하나로 간주하고 있다. <그림 1>에는 혼인력의 주요 변화양상으로 크게 네 가지 즉, 초혼연령의 상승, 미혼율의 증가, 혼인형태의 다양화, 그리고 국제결혼의 증가가 제시되어 있다.

단혼제(monogamy)를 전제로 하는 한, 혼인적령기 남녀인구의 불균형이 심화되면 초혼연령을 상승시키고 미혼율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한국사회의 평균초혼연령(SMAM: singulate mean age at marriage)은 지난 반세기 동안 매우 빠른 속도로 상승하여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하였다. 물론 이러한 상승추세는 그 동안 사회경제적 발전에 수반하여 교육의 급격한 팽창, 도시로의 인구이동 및 여성의 결혼 이전 취업이 증가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권태환·김두섭, 2002: 305-306).

그런데 교육의 팽창, 도시화, 여성의 취업이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에 도달한 1990년대 초반 이후 평균초혼연령은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비해서 오히려 더 빠른 상승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1975년 남녀의 평균초혼연령은 각각 27.4세와 23.7세였으나, 1990년에 각각 27.8세와 24.8세, 그리고 2004년에는 각각 30.6세와 27.5세로 상승하였다. 이처럼 1990-2004년의 기간에 평균초혼연령이 보다 빠른 속도로 높아진 원인의 상당 부분은 혼인적령기 남녀인구의 불균형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는 젊은 여자의 도시이주로 성비불균형의 문제가 심각했던 농촌지역에서 1980년대 중반 이후 남자의 평균초혼연령이 도시지역보다 더 빠른 속도로 상승하였다는 사실로도 증명된다.<sup>3)</sup>

3) 과거와는 대조적으로, 1985년과 1990년에는 농촌지역의 남자 평균초혼연령이 도시지역보다 오히려 높아졌던 것으로 밝혀졌다(권태환 외, 1996; 김두섭, 1997). 또한 동부, 읍부, 면부의 남자 평균초혼연령이 1995년에는 각각 28.4세, 28.1세, 27.9세였으나, 2004년에는 각각 30.6세, 30.3세, 30.4세로 추산되었다(통계청, 2006). 즉, 이 기간 동안에 면부 지역의 남자 평균초혼연령이

일반적으로 평균초혼연령의 상승은 20대 및 30대 초반에서 미혼율이 높아지고 유배우율이 낮아지는데 기인한다. 예를 들어, 25-29세 연령집단에서 1990년에 남녀 각각 57.3%와 22.1%이던 미혼율이 불과 10년 후인 2000년 센서스에서는 각각 71.0%와 40.1%로 집계되었다. 또한 과거에는 30세가 넘으면 미혼율이 아주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으나 1980년대 후반 이후 빠른 속도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결혼을 필수적이라기보다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변화와, 혼자서도 살 수 있게끔 달라진 생활구조의 변화에 기인하여 미혼으로 남는 독신자가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혼인적령인구의 남녀불균형과 결혼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최근 혼인형태가 다양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혼인시장에 압박이 심해질 때 우선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은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 신랑-신부의 연령 차이에 대한 기존 관행이 약화되고, 배우자의 과거 결혼경험에 대한 거부감도 현저하게 줄어들어 가는 것이다. 최근에 이르러 전체 혼인 중에서 재혼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특히 여성의 경우에 그러하다. 혼인신고자료에 의하면 2004년 혼인 건수의 14.3%가 남녀 모두 재혼자이며, 총각과 재혼녀의 혼인도 6.1%를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여성 연상 또는 동갑의 초혼 비율도 꾸준히 증가하여 2004년에는 전체 혼인의 26.6%를 점유하고 있다(통계청, 2006).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혼인형태가 다양해지는 과정에서도 상대적으로 열악한 조건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배우자를 구하는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들의 선택은 주로 독신자로 남거나 외국에서 배우자를 구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한국인의 국제결혼이 1990년대 이후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도 이런 설명이 적용될 수 있다. 국제결혼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 절에서 이루어진다.

---

동부와 읍부 지역에 비해 더 빠른 속도로 상승하였으며, 2004년에는 면부 지역의 남자 평균초혼연령이 읍부 지역보다 오히려 약간 높아졌다.

### Ⅲ. 혼인 및 이혼신고자료의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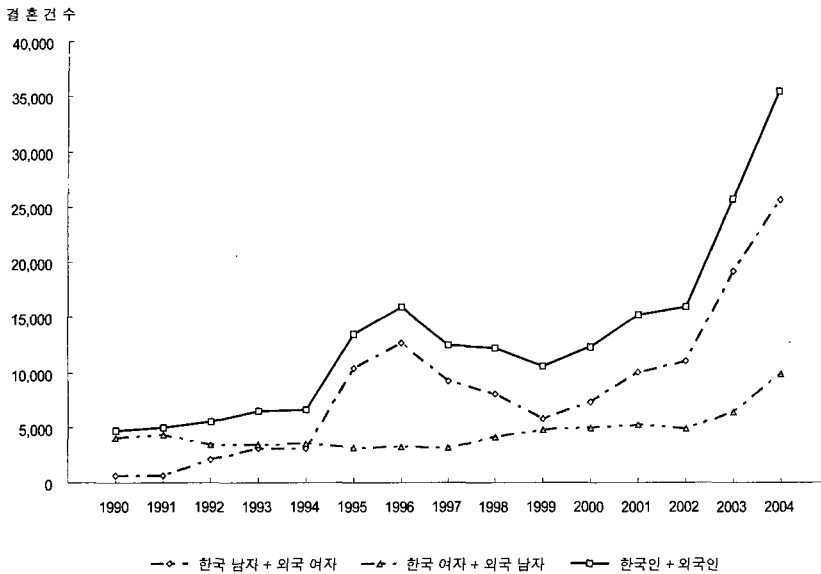
#### 1. 국제결혼의 추세와 배경

지난 1990년대 초반은 한국인의 국제결혼에 있어서 커다란 전환이 이루어진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한중 국교수립(1992년) 이후 중국 조선족에 대하여 친척방문과 문화교류의 문호가 확대되면서 조선족 여성들이 한국 농촌지역으로 대규모 혼인이주해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물론, 1980년대 초반부터 통일교도와 외국인의 집단결혼이 이루어지고 1988년 올림픽을 계기로 외국인의 혼인이주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의 혼인통계자료들은 체계적 분석이 가능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

한국 여자와 외국 남자와의 국제결혼은 20세기 중반에 이르기까지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였다. 일본의 식민지 기간에도 한반도 내에서는 일본인, 특히 일본 남자와의 결혼은 그리 많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전쟁 이후에는 미국 군인과 결혼한 경우를 비롯하여 한국 여자의 해외혼인이주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외교통상부 자료에 의하면, 1981~2003년의 기간에 총해외이주자 47.3만 명 중에서 13.7%에 해당하는 6.5만 명이 국제결혼을 위해 해외로 이주하였다. 그러나 결혼을 목적으로 한 해외이주자의 규모는 1981년의 6,187명에서 2003년 1,113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통계청, 2006).

<그림 2>는 한국인의 국제결혼 증가추이를 보여준다. 한국인이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하여 신고한 건수는 1990-2004년의 기간에 총 19.8만 건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혼인 556.8만 건의 3.5%에 해당된다. 한국인의 국제결혼 건수는 2004년에 3.5만 건으로, 1990년에 비하면 7.5배, 그리고 2000년에 비해서도 2.9배로 증가하였다. 국제결혼의 증가추세는 특히 최근으로 올수록 그 속도가 빨라지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림 2>에서 보는 것처럼, 1997~1998년의 외환위기를 전후로 한국 남자의 국제결혼이 단기적으로 감소하기도 하였으나, 2000년대에 진입한 이후 급속한 증가추세를 보인다. 혼인신고를 기준으로 할 때, 2004년에는 국제결혼이 전체 결혼 건수의 11.4%를 점유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국제결혼이 다양한 혼인형태의 하나로 이미 자리 잡았으며, 더 이상 비정상적인 혼인행위로 간주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2>에서 한국 여자와 외국 남자의 결혼이 2002년 이후 빠른 속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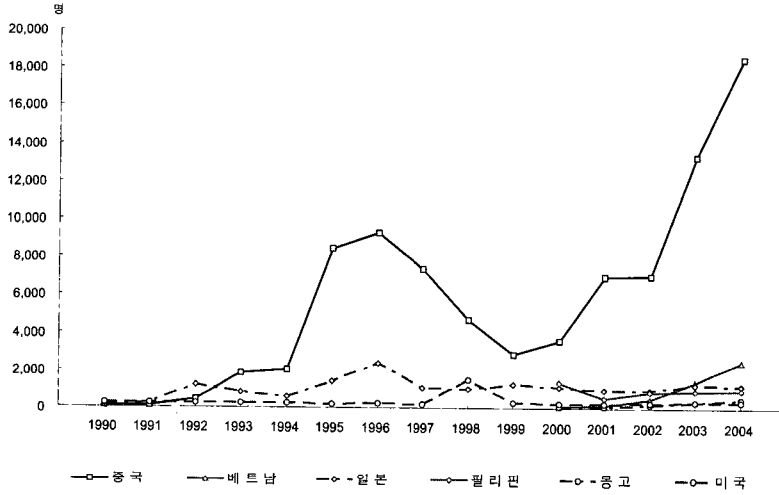


<그림 2> 한국인의 국제결혼 추이, 1990-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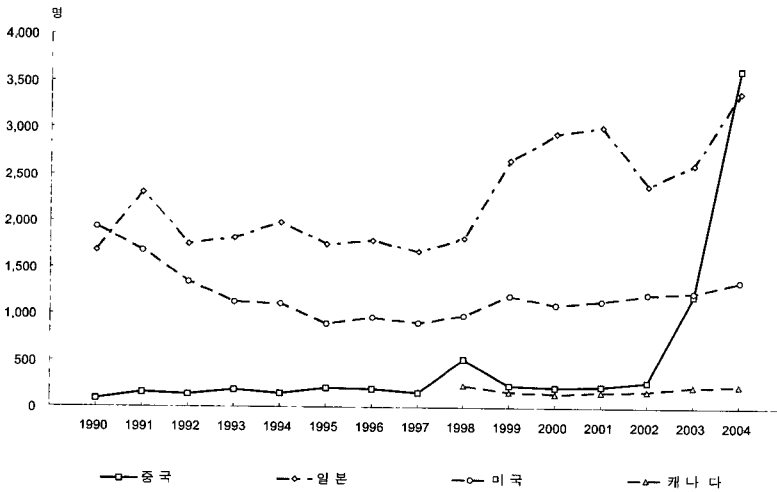
증가하고 있으나,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의 결혼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증가의 폭이 완만하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그리고 1991년에 이르기까지는 한국 여자의 국제결혼이 한국 남자의 국제결혼보다 월등하게 많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1995년부터 역전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그 격차가 점차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다. 참고로 2004년에 신고된 국제결혼 35,447건 중에서 외국 여자와의 결혼은 25,594건이었고 외국 남자와의 결혼은 9,853건이었다.

<그림 3>과 <그림 4>에는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별 변화 추이가 제시되어 있다. 외국인 아내의 국적은 중국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 남자와 중국 여자의 결혼은 1990~2004년의 기간 동안 86,693건이 신고 되었으며, 1996년에 12,647건으로 정점에 도달한 후 감소하다가 1999년을 기점으로 다시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인다. 그런데 이들 중국 여자의 대부분이 연변을 포함한 길림성, 요령성 및 흑룡강성에 거주하던 조선족으로 추정된다.<sup>4)</sup>

4) 통계청의 혼인통계자료에는 중국 국적의 아내의 경우에 조선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한편, 법무부의 2005년 자료에 의하면 중국 국적 아내의 73.3%가 조선족인 것으로 추정된다(실동훈 외, 2005).



〈그림 3〉 외국인 여자배우자의 국적별 추이, 1990-2004



〈그림 4〉 외국인 남자배우자의 국적별 추이, 1990-2004

최근에 이르러서는 한국 남자와 결혼하는 중국 여자 중에서 한족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가 관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조선족과의 결혼 건수는 앞으로도 증가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정부는 3D 업종의 노동력 부족을 완화시키고자 2004년부터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중국 조선족의 경우에는 특례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중국 조선족은 친지방문의 목적으로 입국하여 국내의 고용안정센터에 취업알선을 요청하면 취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른 한국이주의 기회확대는 결국 국제결혼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외국인 아내의 국적은 2004년 혼인신고를 기준으로 중국(18,527명) 다음으로 베트남(2,462명), 일본(1,224명), 필리핀(964명), 몽고(504명), 미국(344명)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00년대에 진입한 이후 외국인 아내의 국적이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구소련연방의 국가들로 급격하게 확산되는 경향이 발견된다. 이 같은 현상은 한국의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의 일환으로 1980년대 말부터 상당한 규모로 지속된 조선족 여성들의 혼인이주가 2000년대에 이르면 더 이상 확대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하였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sup>5)</sup> 예를 들어, 베트남 여자와의 결혼은 2000년 95건에 불과하였으나 2004년에는 25.9배로 대폭 증가하여 중국에 이어 두 번째 국가가 되었다. 베트남, 몽고, 구소련연방국가 여자와의 결혼이 짧은 기간에 이처럼 급증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국제결혼의 대부분이 결혼중개업체의 대단위 알선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림 4>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외국 남자와의 결혼 건수는 외국 여자와의 결혼에 비해 그 사례수가 현저하게 작다. 또한 외국인 남편의 국적분포가 소수의 국가에 더 집중되어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예를 들어, 2004년에 혼인신고된 외국인 남편의 국적은 중국(3,621명), 일본(3,378명), 미국(1,348명), 캐나다(230명)의 순이었으며, 이들 네 국가가 전체의 87.1%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남편의 국적빈도는 2003년까지 일본이 가장 많았으나 2004년에 이르러 중국에 역전되었다. 미국인 남편의 빈도가 1990년대 초반보다 오히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또한 외국인 아내의 국적분포에 비해 일본,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독일 등 선진국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도 지적할 수 있다.

5) 지난 1980년대 후반부터 조선족 여성들이 대규모로 한국 및 중국 내 대도시로 이동한 결과, 중국의 조선족사회에서는 젊은 여성의 부족으로 혼인시장에 커다란 혼란이 일어나고 조선족인구의 출산력 저하현상이 가속화 되었다. 예를 들어, 1990년의 중국인구센서스에서 연변조선족자치주의 20-29세 조선족 여자인구는 82,455명으로 집계되었으나, 2000년의 인구센서스에서는 58.8% 수준에 불과한 48,465명으로 급격하게 줄어들었다(김두섭, 2003; Kim and Kim, 2005).

## 2. 외국인 배우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이 논문이 추구하는 목적의 하나는 국제결혼 당사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혼인신고의 전수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 남자와 한국 여자의 국제결혼은 그 성격과 결혼 당사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있어서 확연하게 대비된다. 또한 외국 여자 또는 외국 남자와 결혼하는 각각의 집단 내부에서도 배우자의 국적에 따라서 커다란 차이가 발견된다. 이 절에서는 주로 2004년 혼인신고 원자료(raw data)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가 제시된다.

우선 외국인과 결혼하는 한국인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의 하나는 남녀 모두 혼인연령이 빠른 상승추세를 보인다는 것이다. 외국인과 결혼한 한국 남편과 한국 아내의 평균혼인연령은 1990년에 각각 32.4세와 28.6세이었으나, 2004년에는 각각 41.4와 36.6세로 상승하였다. 이는 2004년 한국인구의 평균초혼연령이 남녀 각각 30.6세와 27.5세이었음을 감안할 때, 월등히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표 1>에서 중국인 아내를 맞은 한국 남자의 평균연령은 43.3세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일본과 미국 국적의 여자와 결혼한 한국 남자들은 상대적으로 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외국인 아내의 평균연령은 33.1세로 남편보다 8.3세가 낮다. 베트남, 필리핀, 몽고의 여자와 결혼한 경우에는 남편과 아내의 연령 차이가 10세를 넘는다. 특히 한국 남편과 베트남 아내의 평균연령의 격차는 17.1세나 된다. 이에 비해 일본이나 미국 여자와 결혼한 경우에는 부부의 연령 차이가 아주 작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 남편과 외국인 아내의 결혼에서는 남편이 아내보다 연상인 경우가 88.4%이었으며, 동갑과 아내 연상의 비율은 각각 4.0%와 7.6%에 불과하였다.

<표 1>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별 남편과 아내의 평균연령 및 부부의 연령 차이, 2004

외국인 아내 국적	남편 평균연령	아내 평균연령	남편-아내 연령 차이	N	외국인 남편 국적	남편 평균연령	아내 평균연령	남편-아내 연령 차이	N
합 계	41.4	33.1	8.3	25,594	합 계	39.6	36.6	3.1	9,853
중 국	43.3	35.9	7.4	18,527	중 국	40.1	40.8	-0.7	3,621
베트남	38.6	21.5	17.1	2,462	일 본	44.8	36.7	8.2	3,378
일 본	31.8	30.0	1.8	1,224	미 국	33.5	30.7	2.8	1,348
필리핀	38.0	25.5	12.6	964	캐나다	32.2	29.2	2.9	230
몽 고	38.7	27.8	10.9	504	기 타	32.5	31.7	0.8	1,276
미 국	34.8	33.2	1.6	344					
기 타	35.3	27.0	8.2	1,569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한국 여자와 외국 남자간의 결혼은 일본 남자와 결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부 간의 연령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편이다. 일본과 중국인 남편의 평균연령은 각각 44.8세와 40.1세로 매우 높아 주목할 만하다. 미국과 캐나다 국적의 남편은 상대적으로 젊은 것으로 집계되었으나, 이들의 평균연령 역시 한국 남자의 평균초혼연령보다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중국 남자와 결혼하는 한국 여자의 평균연령은 40.8세로 남편의 평균연령보다도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국적에 관계없이 한국 아내와 외국인 남편의 연령비교에서 아내가 연상인 경우는 33.8%이었고, 부부 동갑은 7.1%이었다.

국제결혼한 남편과 아내의 연령이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은 이들의 상당 부분이 초혼이 아니라 재혼이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 이르러 30, 40대의 한국 남자들이 외국인 배우자와 재혼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표 2>에는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별로 국제결혼 부부의 초혼 여부별 분포가 제시되어 있다. 이 표에서 한국 남자와 중국 이외 외국 여자와의 결혼에서는 부부가 모두 초혼인 경우가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국과 미국 국적의 여자와의 결혼에서는 부부 모두가 재혼인 경우가 각각 46.2%와 26.0%로 밝혀졌다. 또한, 필리핀, 몽고, 베트남을 비롯한 저개발국의 여자와의 결혼에서는 아내는 초혼이고 한국 남편은 재혼인 경우의 비율이 두드러지게 높았다.

<표 2>에서 외국 남자와 결혼하는 한국 아내는 재혼이 52.8%로 초혼보다 많다. 한국 아내의 재혼비율을 외국인 남편의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78.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일본이 50.6%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에는 재혼비율이 각각 22.8%와 9.2%로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과 일본 국적의 남자와의 결혼에서는 부부 모두가 재혼인 경우가 각각 62.0%와 32.3%로 높게 집계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참고로, 2004년 한국인끼리의 결혼에서 남녀의 재혼비율은 각각 18.2%와 20.4%로, 국제결혼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낮았다.

한국인과 중국인의 결혼에서 부부 모두의 재혼비율이 유독 높게 나타나는 것은 특이한 현상이다. <표 2>에서 보는 것처럼, 한국인과 결혼한 중국인 아내의 65.1%, 중국인 남편의 69.4%가 재혼인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인과 결혼한 한국 남편과 아내의 재혼비율도 각각 53.1%와 78.2%에 이른다. 이러한 현상은 2000년대에 진입한 이후부터 관찰되기 시작하였으며, 1990년대 말까지는 재혼보다 초혼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예를 들어, 2000년 혼인신고자료에서는



<표 2>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별 국제결혼 부부의 초혼 여부별 분포, 2004

외국인 아내 국적	한국 남편 초혼- 외국 아내 초혼	한국 남편 재혼- 외국 아내 초혼	한국 남편 초혼- 외국 아내 재혼	한국 남편 재혼- 외국 아내 재혼	합 계	N
합 계	39.7	10.9	14.4	35.0	100.0	25,073
중 국	28.0	6.9	18.9	46.2	100.0	18,183
베트남	71.9	26.6	0.3	1.2	100.0	2,426
일 본	83.3	6.8	4.2	5.7	100.0	1,140
필리핀	70.0	28.8	0.7	0.5	100.0	945
몽 고	59.7	28.2	3.4	8.7	100.0	496
미 국	62.0	7.0	5.0	26.0	100.0	342
기 타	66.3	20.3	4.6	8.8	100.0	1,541
외국인 남편 국적	외국 남편 초혼- 한국 아내 초혼	외국 남편 재혼- 한국 아내 초혼	외국 남편 초혼- 한국 아내 재혼	외국 남편 재혼- 한국 아내 재혼	합 계	N
합 계	36.2	11.0	16.4	36.4	100.0	9,580
중 국	14.4	7.4	16.2	62.0	100.0	3,548
일 본	33.0	16.4	18.3	32.3	100.0	3,219
미 국	63.6	13.6	8.7	14.1	100.0	1,328
캐나다	85.6	5.2	5.2	4.0	100.0	229
기 타	67.8	5.1	22.6	4.5	100.0	1,256

한국인과 결혼한 중국인 아내의 35.9%, 중국인 남편의 14.4%가 재혼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리고 중국인과 결혼한 한국 남편과 아내의 재혼비율도 각각 34.4%와 16.3%에 불과하였다. 유독 중국인과의 결혼에서 재혼자의 비율이 최근에 급격하게 상승한 것은 결혼가치관의 전반적인 변화와 아울러 일부 중국인들이 취업을 목적으로 한국인과 위장결혼 하여 입국하는 경향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3>은 국제결혼한 부부의 교육수준을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별로 보여준다. 외국인 아내의 교육수준은 국적에 따라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중국과 베트남 아내의 약 절반이 중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지니고 있으며, 대학 이상의 비율은 아주 낮다.<sup>6)</sup> 그러나 미국인 아내의 경우에는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은 비율이 81.7%에 이른다. 한편, 중국, 베트남, 필리핀, 몽고 국적의 아내

6) 혼인신고서에 기재된 교육수준의 이 같은 집계결과는 소규모 표본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일부 실태조사의 결과와는 상당히 다른 것이다. 예를 들어, 설동훈 외(2005)의 면접조사에서는 베트남 아내의 56.8%와 10.8%가 각각 고등학교와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중국 조선족과 한족 아내의 경우에도 그 비율이 각각 57.2%와 14.4%, 그리고 51.5%와 36.4%로 교육수준이 매우 높게 집계되었다. 그 동안 일부 실태조사에서 외국인 배우자들의 교육수준과 사회경제적 배경이 과대추정된 것은 조사대상자 표본의 크기가 작다는 점과 아울러 조사대상자들이 사회경제적 배경을 부풀려 응답하는 경향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3〉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별 국제결혼 부부의 교육수준 분포, 2004

외국인 아내 국적	외국인 아내의 교육수준				N	한국 남편의 교육수준				N
	중졸 이하	고졸	대학 이상	합계		중졸 이하	고졸	대학 이상	합계	
합 계	41.0	44.1	14.8	100.0	24,568	27.3	56.9	15.8	100.0	24,870
중 국	48.0	45.3	6.7	100.0	17,894	29.9	59.3	10.8	100.0	18,072
베트남	50.1	45.3	4.6	100.0	2,379	27.9	60.2	11.9	100.0	2,440
일 본	4.3	36.3	59.4	100.0	1,023	6.3	36.5	57.2	100.0	1,030
필리핀	6.7	49.8	43.5	100.0	929	30.3	53.3	16.4	100.0	944
몽 고	6.6	35.2	58.2	100.0	483	27.4	58.8	13.9	100.0	497
미 국	1.5	16.8	81.7	100.0	339	2.9	17.3	79.8	100.0	341
기 타	10.5	38.9	50.6	100.0	1,521	14.0	48.1	37.9	100.0	1,546

외국인 남편 국적	외국인 남편의 교육수준				N	한국 아내의 교육수준				N
	중졸 이하	고졸	대학 이상	합계		중졸 이하	고졸	대학 이상	합계	
합 계	16.7	47.4	35.9	100.0	9,464	19.3	50.3	30.4	100.0	9,491
중 국	36.5	55.6	7.9	100.0	3,511	37.1	56.7	6.2	100.0	3,507
일 본	7.2	58.4	34.4	100.0	3,142	12.1	62.8	25.1	100.0	3,170
미 국	0.7	26.6	72.7	100.0	1,339	3.6	28.3	68.1	100.0	1,339
캐나다	0.0	6.6	93.4	100.0	227	0.4	9.2	90.4	100.0	228
기 타	5.0	26.7	68.3	100.0	1,245	7.9	31.6	60.5	100.0	1,247

를 맞은 한국 남편의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별로 부부의 교육수준을 비교하는 다양한 분석작업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교육수준의 격차는 한국 남편과 베트남 아내의 경우에 가장 두드러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의 교육수준을 5개의 범주로 구분하였을 때, 37.9%는 한국 남편의 교육수준이 베트남 아내보다 높았고, 47.8%는 부부의 교육수준이 같았다. 그러나 이들 부부의 14.3%는 아내의 교육수준이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가난을 해결하거나 보다 나은 삶을 찾아 혼인이주 한 여성들의 대부분이 낮은 교육수준 등 매우 열악한 사회경제적 조건을 지니고 있다는 기존의 편견이 잘못되었음을 시사한다.

<표 3>에서 한국 여자와 결혼한 미국과 캐나다 국적 남편들의 교육수준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일본인 남편들은 고등학교 졸업자가 58.4%로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보다 많았다. 중국인 남편 중에서는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은 비율

<표 4>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별 남편의 직업 분포, 2004

외국인 아내 국적	한국 남편의 직업						N
	전문/관리/ 사무	서비스/판매	기능/기술	농어업/ 단순노무	기타	합계	
합 계	25.2	29.3	24.4	15.3	5.8	100.0	24,643
중 국	23.7	32.2	25.0	13.9	5.2	100.0	17,904
베트남	20.0	21.8	24.7	30.2	3.3	100.0	2,412
일 본	46.2	18.6	13.3	3.7	18.2	100.0	1,035
필리핀	21.9	20.2	27.1	26.4	4.4	100.0	936
몽 고	23.0	25.7	31.1	17.1	3.1	100.0	486
미 국	45.0	19.1	14.1	1.2	20.6	100.0	340
기 타	35.0	23.9	23.7	11.7	5.7	100.0	1,530
외국인 남편 국적	외국인 남편의 직업						N
	전문/관리/ 사무	서비스/판매	기능/기술	농어업/ 단순노무	기타	합계	
합 계	38.6	21.8	16.0	8.0	15.6	100.0	9,287
중 국	17.4	27.2	17.8	17.7	19.9	100.0	3,358
일 본	54.9	22.5	15.1	2.8	4.7	100.0	3,141
미 국	36.9	14.4	11.5	0.4	36.8	100.0	1,329
캐나다	59.3	17.9	11.2	0.0	11.6	100.0	224
기 타	52.8	14.0	19.0	4.5	9.7	100.0	1,235

이 7.9%에 불과하며, 고등학교 졸업자가 55.6%를 점유하고 있다. 그리고 <표 3>을 보면, 외국인 남편과 한국 아내의 교육수준별 분포가 상당히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에 따른 교육수준 분포의 차이는 남편의 직업 분포를 살펴봐도 마찬가지로 드러난다. <표 4>를 보면, 외국 여자와 결혼하는 한국 남자가 농촌의 농총각에 국한되고 있지 않으며, 도시 지역의 다양한 직업군으로 이미 확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국제결혼한 한국 남편들은 서비스와 판매직 종사자의 비율이 29.3%로 가장 높다. 이는 중국 여자와 결혼한 한국 남편들이 서비스와 판매 종사자의 비율이 32.2%로 매우 높고, 이들이 숫자가 가장 큰 집단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농어업과 단순노무직 종사자의 비율이 15.3%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특히 베트남과 필리핀으로부터 혼인이주 해온 여자의 30.2%와 26.4%가 농어업과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한국 남자와 결혼하였다. 기능 및 기술직에 종사자의 비율도 4명당 1명이거나 그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일본과 미국 여자와 결혼한 한국 남편은 전문직, 관리직과 사무직 종사자 비율이 각각 46.2%와 45.0%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5〉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별 결혼 후의 거주지역 분포, 2004

외국인 아내 국적	결혼 후의 거주지역						N
	서울	기타 수도권 <sup>1)</sup>	기타 광역시 <sup>2)</sup>	기타 국내 <sup>3)</sup>	국외	합계	
합 계	25.7	29.4	14.5	27.5	2.9	100.0	25,594
중 국	28.9	32.0	14.6	24.2	0.3	100.0	18,527
베트남	11.3	20.8	17.6	50.2	0.1	100.0	2,462
일 본	18.1	13.2	7.0	15.9	45.8	100.0	1,224
필리핀	13.0	18.9	14.3	51.6	2.3	100.0	964
몽 고	22.2	34.9	10.9	31.9	0.0	100.0	504
미 국	37.5	29.4	7.9	9.0	16.3	100.0	344
기 타	21.9	30.2	16.4	28.5	3.0	100.0	1,569
외국인 남편 국적	결혼 후의 거주지역						N
	서울	기타 수도권 <sup>1)</sup>	기타 광역시 <sup>2)</sup>	기타 국내 <sup>3)</sup>	국외	합계	
합 계	29.6	25.3	11.7	15.4	17.9	100.0	9,853
중 국	34.6	32.8	13.4	18.9	0.4	100.0	3,621
일 본	22.5	14.9	11.2	13.5	38.0	100.0	3,378
미 국	35.3	26.0	9.3	11.4	18.0	100.0	1,348
캐나다	38.7	25.2	11.7	17.8	6.5	100.0	230
기 타	27.0	31.0	11.3	14.3	16.4	100.0	1,276

주: 1) 기타 수도권: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포함.

2) 기타 광역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및 울산광역시 포함.

3) 기타 국내: 서울특별시, 6개 광역시 및 경기도를 제외한 국내 기타 지역.

이러한 특성은 한국 여자와 결혼하는 외국인 남편의 직업에서도 마찬가지로 드러난다. 캐나다와 일본인 남편은 전문직, 관리직과 사무직 종사자가 55%대를 넘고, 미국인 남편의 경우에도 그 비율이 36.9%에 달한다. 이러한 특성은 기타 범주의 국적을 지닌 외국인 남편의 경우에도 대부분 마찬가지로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중국인 남편의 경우에는 서비스와 판매직 종사자가 27.2%로 가장 높았고, <표 4>에 제시된 나머지 네 직업집단이 모두 17%대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혼인신고서에 기재된 아내의 직업분포에 대한 분석도 시도되었다. 그러나 혼인이주자들의 혼인신고가 대부분 결혼 직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외국인 아내의 경제활동참가율이 현저하게 낮게 집계될 가능성이 크다. 혼인신고자료의 집계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아내의 82.3%가 학생, 무직, 가사종사자로 집계되었으며, 전문직과 관리직 종사자는 1.6%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외국인 남편과 결혼한 한국 아내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각각 61.8%와 6.0%이었다.

참고로, 혼인이주자를 대상으로 2005년에 이루어진 한 실태조사에서는 외국인

아내의 60%가 취업하고 있으며, 취업자 중에서는 서비스업종사자 52%, 공장근로자 14%, 그리고 자영업자가 13%로 나타났다(설동훈 외, 2005). 그러나 혼인 이주자들의 경제활동참가는 결혼 이후 얼마나 경과한 시점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으로 판단된다.

국제결혼한 부부들의 결혼 이후 거주지역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비율이 약 65%에 해당된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국제결혼이 초기와는 달리 농촌의 노총각 위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지역으로 광범하게 확산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국으로의 혼인이주의 역사가 비교적 짧은 베트남과 필리핀으로부터 아내를 맞은 부부들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이 서울에 거주하는 비율은 각각 11.3%와 13.0%로 두드러지게 낮게 나타난다.

<표 5>에서는 일본인과 결혼한 부부의 경우에도 서울거주비율이 비교적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발견된다. 이러한 현상은 일본 여자 및 남자와 결혼한 한국인의 45.8%와 38.0%가 일본을 비롯하여 국외에 거주하기 때문이다. 혼인신고는 국외에서 재외공관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가능하며, 일본인과 결혼한 한국인의 상당 부분은 일본에 장기 체류하거나 영주하는 동포일 것으로 추정된다. 결혼 이후 국외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은 것은 미국인과의 결혼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 3. 이혼

한국사회에서는 최근에 이르러 자기중심적인 삶을 지향하는 가치관의 변화와 아울러 경기불황으로 인한 경제난, 여성의 경제활동능력의 향상 등으로 이혼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인다. 한국의 조이혼율은 2004년 현재 2.9로 OECD 회원국 중에서 미국에 이어 2위에 해당되며, 일본이나 대부분의 유럽국가보다도 높은 수준이다(통계청, 2006).

이혼의 급격한 상승추세는 국제결혼한 한국인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다. 이들이 신고한 이혼 건수는 2004년 총 3,400건으로, 2000년에 비해 2배, 그리고 2003년에 비해 1.6로 증가하였다. 특히 2004년에 이르러 외국인 아내와의 이혼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였음을 지적할 수 있다. <표 6>에서 2004년 외국인 아내와의 이혼 건수는 불과 1년 전인 2003년보다 1,028건이 증가한 1,611건으로 집계되었다. 이혼한 외국인 아내를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 아내와의 이혼이 841건으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베트남 147건, 일본 145건,

〈표 6〉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별 이혼추이, 2000-2004

외국인 아내 국적	2000	2001	2002	2003	2004	외국인 남편 국적	2000	2001	2002	2003	2004
합 계	320	462	401	583	1,611	합 계	1,369	1,407	1,465	1,581	1,789
중 국	96	170	181	275	841	일 본	1,114	1,097	1,160	1,218	1,351
베트남	-	-	7	28	147	미 국	199	195	180	226	264
일 본	180	140	97	121	145	중 국	31	46	51	36	45
필리핀	-	-	29	44	112	독 일	5	8	10	9	17
몽 고	-	-	10	6	83	파키스탄	-	-	3	9	16
미 국	28	45	21	27	74	기 타	20	61	61	83	96
우즈베키스탄	-	-	3	16	67						
기 타	16	107	53	66	142						

필리핀 112건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이 표에서 외국인 아내와 이루어진 이혼 건수의 국적별 순위는 제 6위인 미국에 이르기까지 혼인 건수의 국적별 순위와 일치한다. 그리고 베트남, 필리핀, 몽고,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에는 이들과의 결혼이 불과 지난 5-6년 전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결혼기간이 매우 짧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한편, 한국 아내와 외국인 남편의 이혼은 2004년 1,789건으로 2000년보다 30.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1990~2004년의 기간에 신고된 국제결혼 중에서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의 결혼 건수가 한국 여자와 외국 남자의 결혼 건수의 1.9배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외국 남자와의 결혼에서 상대적으로 이혼이 많이 발생한 셈이다. 외국인 남편의 국적별 구성비를 보면, 한국 여자와의 국제결혼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길다 할 수 있는 일본이 1,351건으로 75.5%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이 미국 264건(14.8%), 중국 45건(2.5%)이다.

외국인 아내의 이혼연령은 매우 낮은 경향을 나타낸다. <표 7>을 보면 25세 미만과 25-29세 집단에서 각각 26.3%(424건)와 26.6%(429건)로 전체 이혼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40대 이상에서 이루어진 이혼은 16.5%(265건)로 상대적으로 적게 집계되었다. 특히 베트남 아내의 경우에는 2004년에 신고된 147건의 이혼 중에서 74.8%에 해당하는 110명이 25세 미만이었다. 참고로, 2004년 한국인의 평균이혼연령은 남녀 각각 41.8세와 38.3세이었다(통계청, 2005).

외국인 남편의 이혼연령은 외국인 아내에 비해서는 물론 한국인의 평균이혼

<표 7>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 연령 및 자녀의 수별 이혼, 2004

외국인 아내 국적	외국인 아내의 연령					20세 미만 자녀의 수				N
	15-24	25-29	30-39	40+	합계	0	1	2+	합계	
합 계	26.3	26.6	30.6	16.5	100.0	91.1	6.3	2.6	100.0	1,611
중 국	20.3	26.5	34.8	18.4	100.0	94.4	4.0	1.6	100.0	841
베트남	74.8	12.9	8.2	4.1	100.0	93.9	4.1	2.0	100.0	147
일 본	7.6	20.0	43.4	29.0	100.0	72.4	19.3	8.3	100.0	145
필리핀	30.4	32.0	31.3	6.3	100.0	88.4	8.9	2.7	100.0	112
몽 고	33.7	53.0	13.3	0.0	100.0	98.8	1.2	0.0	100.0	83
미 국	6.8	18.9	24.3	50.0	100.0	83.8	8.1	8.1	100.0	74
우즈베키스탄	44.8	32.8	19.4	3.0	100.0	94.0	3.0	3.0	100.0	67
기 타 <sup>1)</sup>	24.7	29.6	33.7	12.0	100.0	88.0	9.9	2.1	100.0	142

외국인 남편 국적	외국인 남편의 연령					20세 미만 자녀의 수				N
	15-24	25-29	30-39	40+	합계	0	1	2+	합계	
합 계	1.2	5.0	21.2	72.6	100.0	86.5	9.3	4.2	100.0	1,789
일 본	0.2	2.2	14.0	83.6	100.0	90.2	7.2	2.6	100.0	1,351
미 국	4.9	15.2	39.0	40.9	100.0	79.1	11.0	9.9	100.0	264
중 국	0.0	6.6	46.7	46.7	100.0	64.4	26.7	8.9	100.0	45
독 일	0.0	5.9	52.9	41.2	100.0	76.4	11.8	11.8	100.0	17
파키스탄	12.5	12.5	68.7	6.3	100.0	81.2	18.8	0.0	100.0	16
기 타 <sup>2)</sup>	3.1	14.6	49.0	33.3	100.0	66.7	25.0	8.3	100.0	96

주: 1) 태국, 러시아, 호주 등 26개국.

2) 호주, 캐나다, 대만 등 29개국.

연령보다도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발견된다. <표 7>에서 보는 것처럼, 30대에서 이혼한 경우가 380건으로 21.2%, 40대 이상이 1,298건으로 72.6%를 점유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외국인 남편의 국적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예외적으로 파키스탄 남편의 경우 30대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나, 사례수가 16건으로 매우 적기 때문에 통계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

국제결혼의 경우에도 미성년 자녀의 존재는 이혼을 억제시키는 강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경향은 외국인 배우자의 성별과 국적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표 7>에서 2004년 외국인 아내와 이혼 당시 20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가 91.1%를 점유하고 있으며, 미성년 자녀를 두고 이혼한 경우는 모두 143건에 불과하였다. 외국인 남편과의 이혼에 있어서도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자녀의 수가 2명 이상이면 이혼신고의 건수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는 75건으로 집계되어 전체 이혼 건수의 4.2%에 불과하다.

#### IV. 맺는 말

이 논문은 혼인 및 이혼신고자료를 활용하여 1990년 이후 한국인의 국제결혼 증가추이와 배우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이 논문은 국제결혼의 증가를 최근의 혼인력 변화의 한 단면으로 규정하고, 이를 성/연령 인구구성의 변화와 가치관의 변화로 설명하는 틀을 제시하였다. 한국사회의 국제결혼 증가를 초래한 주요 원인으로는 출산력의 지속적인 저하, 출생성비의 상승, 농촌-도시 인구이동, 양성평등 관념의 확산, 그리고 세계화의 다섯 가지가 강조되었다. 이 설명틀에서는 이러한 요인들이 혼인적령인구의 남녀균형을 악화시킴으로써 국제결혼의 증가 등 혼인력의 변화를 초래하게 되는 인과구조가 논의되었다. 아울러, 가치관 변화와 세계화 추세가 국제결혼의 증가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인과효과에 대한 설명도 이루어졌다. 이 연구에서 1990-2004년의 혼인신고와 2000-2004년 기간에 이루어진 이혼신고의 전수자료를 분석하여 얻은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한국인의 국제결혼은 1990년대 초부터 급격하게 증가하며, 최근으로 올수록 증가속도가 빨라진다. 지난 1990년대 말의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한국 남자의 국제결혼이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기도 하였으나, 2000년대에 진입하면서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지난 10년간은 한국 남자의 국제결혼이 여자보다 월등하게 많았으며, 그 격차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외국인 아내의 국적은 중국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며, 다음으로 베트남, 일본, 필리핀, 몽고, 미국의 순서이다. 최근에는 동남아시아 국가와 구소련연방국가 여성과의 결혼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 남편의 국적은 중국, 일본, 미국의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둘째, 국제결혼에 관하여 우리가 지닌 편견의 상당 부분은 한국 남자와 중국 또는 동남아시아 국가 여자의 결혼이 국제결혼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이에 따라 국제결혼의 다양성이 간과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한국 남자와 한국 여자의 국제결혼은 부부의 특성에서 확연하게 대비된다. 그리고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에 따라서도 커다란 차이가 발견된다. 혼인적령인구의 성비불균형으로 인하여 혼인시장에 가해진 압박에 의해 촉진된 국제결혼은 주로 한국 남자와 중국, 동남아시아 및 구소련연방 국가의 여자와의 결혼에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비해 한국 남자와 선진국 여자의 결혼이나 한국 여자의 국제결혼은 가치관의 변화와 세계화에 따른 인적교류의 확대에 기인하는바 크다고 해석할 수 있다.



셋째, 국제결혼을 하는 한국인은 남녀 모두 혼인연령이 빠른 상승추세를 보이며, 재혼자의 비율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다. 특히 중국인 아내를 맞은 한국 남편의 평균연령이 높고, 일본 및 미국 여자와 결혼한 한국 남자들은 상대적으로 젊다. 일반적으로 외국인 아내는 한국 남편보다 월등히 젊은 경향을 보인다. 이는 특히 베트남, 필리핀, 몽고의 여자와의 결혼이 그러하며, 아울러 아내는 초혼이고 한국 남편은 재혼인 경우가 두드러지게 많다. 따라서 국가 간 발전수준의 차이에 기초한 저개발국 여성의 상품화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지닌다. 한편, 한국 남자와 선진국 여자와의 결혼이나 한국 여자의 국제결혼에서는 부부의 연령 차이가 상대적으로 작다. 또한, 국제결혼을 하는 부부들은 초혼인 경우가 압도적이거나 한국인과 중국인의 결혼에서는 2000년 이후 부부 모두의 재혼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미국 여자 및 일본 남자와 결혼한 경우에도 부부 모두 재혼비율이 비교적 높다. 일반적으로 외국 남자와 결혼하는 한국 아내는 재혼이 초혼보다 많다.

넷째, 국제결혼 부부의 교육수준은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에 따라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중국과 베트남 아내의 약 절반이 중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지니고 있으며, 일본과 중국인 남편들은 고등학교 졸업자가 가장 많다. 중국, 베트남, 필리핀, 몽고의 아내를 맞은 한국 남편들도 고등학교 졸업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미국인 배우자와 캐나다 남편은 절대다수가 대학 교육을 받았다. 부부의 교육수준은 한국 남편과 베트남 아내의 결혼에서 그 격차가 가장 두드러진다. 그러나 외국인 남편과 한국 아내의 교육수준 분포는 대체로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다섯째, 국제결혼이 농촌의 노총각 위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더 이상 사실이 아니다. 국제결혼한 부부들의 약 65%가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의 직업분포 역시 이를 뒷받침 한다. 한국인과 중국인의 결혼에서는 남편들이 서비스와 판매직 종사자가 많다. 베트남과 필리핀 여자들과 결혼한 한국 남편들은 농어업과 단순노무직 종사자의 비율이 비교적 높다. 한편, 일본, 미국, 캐나다인과의 국제결혼에서는 남편들이 전문직, 관리직, 사무직 종사자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외국인 아내의 절대다수가 학생, 무직, 가사종사자로 집계되었으며, 전문직과 관리직 종사자는 아주 적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들의 혼인신고가 결혼 직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경제활동참가율이 현저하게 낮게 집계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국제결혼에서도 이혼의 급격한 상승추세가 발견된다. 특히 한국 아내와 외국인 남편의 결혼에서 상대적으로 이혼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혼

한 외국인 아내의 국적을 보면, 중국인 아내와의 이혼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베트남, 일본, 필리핀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특히 베트남, 필리핀, 몽고,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아내의 경우에는 결혼기간이 매우 짧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이혼한 남편의 국적은 일본이 월등하게 많고, 그 다음이 미국, 중국의 순서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외국인 아내의 이혼연령은 매우 낮은 경향을 보이지만, 외국인 남편의 이혼연령은 외국인 아내에 비해서는 물론 한국인의 평균이혼연령보다도 높게 나타난다. 그리고 외국인 배우자의 성별과 국적에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의 존재는 이혼을 억제시키는 강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국사회에서 출생성비의 불균형에 기인하는 혼인적령기 남녀인구의 불균형 현상은 2015~2020년의 기간에 가장 심화될 것이며, 앞으로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김두섭, 1997). 젊은 여자들이 도시로 이주하여 농촌에서 신부감이 모자라는 현상도 당분간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가치관의 변화로 젊은 여성들이 결혼을 미루거나 기피하는 경향도 지속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력의 국제이동과 국제교류기회의 확대는 국제결혼의 증가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또한,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이 다양해지는 경향도 앞으로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비단 한국사회에만 국한되는 현상이 아니며, 대만, 일본, 싱가포르 등에서도 1990년대 이래 비슷한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한국과 이들 나라들은 지난 20여 년 간의 지속적인 출산력 저하로 인하여 가까운 장래에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임금 직종의 노동력 부족과 농촌지역의 젊은 남자들이 배우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으로부터 젊은 노동인력과 혼인이주자가 유입되는 것은 당연한 일부 사회문제들을 완화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그런데 외국인과의 결혼이 대규모로 이루어지게 되면 장래 인구의 민족구성에 영향을 미치고 여러 가지 사회적 파급효과를 초래하게 된다. 한국처럼 민족적 동질성을 유지해온 사회에서는 이들에 대한 문화적 편견과 차별로 인하여 새로운 사회문제와 갈등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대만에서는 외국인 배우자의 과도한 유입으로 인하여 혼인적령기 자국 여성의 결혼기회와 취업기회가 박탈된다는 역차별 주장이 사회문제화 되기에 이르렀다.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한국도 영주권과 국적을 부여하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외국인 배우자의 유입을 적정수준에서 통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sup>7)</sup> 국적취득을 목적으

7) 혼인이주자의 한국체류자격은 입국비자의 종류에 따라 거주(F-2), 방문동거(F-1)와 영주(F-5)로

로 한 위장결혼을 방지하기 위해 1997년에는 국적법이 개정되었다. 한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인은 결혼 후 국내에 2년 이상 거주하거나, 결혼 후 3년이 경과하고 국내에 1년 이상 거주하여야 국적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sup>8)</sup>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국제결혼은 2004년 전체 결혼 건수의 11.4%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국제결혼을 통해 이루어진 가족도 한국사회의 다양한 가족형태의 하나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지원과 배려는 매우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귀화하지 않은 외국인 혼인이주자는 신분상의 불안정을 감수하여야 하고 사회복지 혜택도 제한된다. 예를 들어, 외국인 배우자는 ‘공적 부조’의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수급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사회복지 및 의료서비스의 확대와 아울러 이들의 취업, 자녀교육과 문화적 적응을 돕고, 가정생활과 직장에서의 차별대우로부터 보호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제도적 장치가 정비되어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는 외국인 배우자의 생활과 관련하여 가난, 폭력, 학대 등 주로 부정적인 측면이 노출되어 왔으나, 국제결혼의 다양성을 감안하여 이들의 결혼이 지니는 장점을 이해하고 긍정적 측면에도 보다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재 외국인 혼인이주자들에 대한 기존의 정책과 프로그램들은 이들의 한국사회로의 문화적 통합과 동화(assimilation)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전제는 특히 저개발국 출신의 외국인 배우자에게 적용된다. 이들이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귀화를 통해 국적을 취득하여야 하고, 한국 국적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신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복합문화주의적 관점에서 이들이 출신국의 문화를 유지하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국제결혼에 대한 편견과 이들의 혼혈자녀들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것도 시급한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지적할 것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혼인이주자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분석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매우 부족하다는 점이다. 혼인이

---

구분되며, 그 구체적인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1) 거주(F-2): 한국 국민이나 영주(F-5)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의 배우자; 2) 방문동거(F-1): 친척방문, 가족동거, 피부양, 가사정리 등의 목적으로 체류하고자 하는 자; 3) 영주(F-5): 일정액 이상의 특별한 투자조건을 갖추거나 거주(F-2)자격으로 5년 이상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 외국인이 거주(F-2) 비자를 발급받으면 1년의 체류기간이 부여되며, 출입국관리국의 허가를 받아 취업이 가능하다. 혼인이주자는 체류기간이 만료되면 배우자(또는 보증능력이 있는 제3자)와 동행하여 체류기간을 연장신청하여야 한다.

8) 그러나 인권보호의 차원에서 2004년에는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 실종, 이혼 등으로 인하여 이 조건을 충족할 수 없더라도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 대비하여 간이귀화요건이 신설되었다.

주자에 대한 기존의 실태조사들이 대부분 제한된 지역에서 소규모의 표본을 조사대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연구에서 사용된 혼인 및 이혼 신고자료는 신고된 국제결혼의 모든 사례를 분석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장점을 지닌다. 반면에 혼인이나 이혼신고서에 기재되는 당사자의 정보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깊이 있는 분석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 국제결혼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현재 가용한 자료들을 활용한 체계적 분석과 아울러, 이들의 결혼생활의 다양한 측면들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광범하게 수집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리고 혼인 이주자를 많이 송출하는 사회나 국가에 대하여도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참고문헌

- 강유진 (1999), “한국 남성과 결혼한 중국 조선족 여성의 결혼생활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4(2): 61-80.
-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2005), 《외국인정책의 과제와 추진방안》, 대통령자문위원회.
- 권태환·김두섭 (2002), 《인구의 이해》, 개정판, 서울대학교 출판부.
- 권태환·김태현·김두섭·전광희·은기수 (1996), 《한국의 출산력변천과 인구전망》, 통계청.
- 김두섭 (1997), “출생성비의 불균형과 지역별 격차,” 권태환·김태현·김두섭·전광희·은기수(공저), 《한국출산력변천의 이해》, 일신사, 132-160.
- \_\_\_\_\_ (2003), “연변 조선족 사회의 최근 변화: 사회인구학적 접근,” 《한국인구학》 26(2): 111-145.
- \_\_\_\_\_ (2005), “한국의 제2차 출산력변천과 그 인과구조,” 《인구와 사회》 1(1): 23-53.
- 김숙자 (1998), “한국 남성과 중국 조선족 여성과의涉外혼인 실태와 그 대책,” 《가족법 연구》 12: 93-137.
- 김애령 (1998), 《충남 거주 조선족여성의 결혼과정과 적응에 관한 연구》, 충남도청.
- 민경자 (2003), 《충남 거주 외국인 주부의 정착 지원방안 연구》, 충남여성정

책개발원.

박현정 (2004), “광주·전남지역 국제결혼 한 이주여성 실태보고,” 광주·전남 지역 국제결혼한 이주여성 실태보고 및 토론회, 광주 여성의 전화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1-34.

법무부 (2006), 법무부 홈페이지 자료, <http://www.moj.go.kr/>.

설동훈·김윤태·김현미·윤홍식·이혜경·임경택·정기선·주영수·한건수 (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 미래인력연구원, 보건복지부 용역연구 보고서.

윤정숙·임유경 (2004), “성별화된 이주 방식으로의 국제결혼과 여성에 대한 폭력: 필리핀 여성과 한국남성의 결혼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

윤형숙 (2004a), “국제결혼 배우자의 갈등과 적응,” 최협·김성국·정근식·유명기 (편), 《한국의 소수자, 실태와 전망》, 한울, 321-349.

\_\_\_\_\_ (2004b), “외국인 출신 농촌주부들의 갈등과 적응: 필리핀 여성을 중심으로,” 2004년 한국여성학회 심포지움 발표 논문.

이운애 (2004), 《전북지역 외국인여성 정착지원 방안》, 전라북도여성발전연구원.

이혜경 (2005), “혼인이주와 혼인이주 가정의 문제와 대응,” 《한국인구학》 28(1): 73-106.

통계청 (2005), 《2004년 혼인·이혼통계 결과》, 인구분석과 보도자료.

\_\_\_\_\_ (2006), 한국통계정보시스템(KOSIS), <http://kosis.nso.go.kr/>.

홍기혜 (2000), “조선족 여성과 한국 남성간의 결혼을 통해 본 이주의 성별 정치학,”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석사학위논문.

Duong, Le Bach, Daniele Belanger, and Khuat Thu Hong (2005), “Transnational Migration, Marriage and Trafficking at the China-Vietnam Border,” Presented at the Ceped-Cicred-Ined Conference on Female Deficit in Asia: Trends and Perspectives, Asian MetaCenter for Popula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nalysis, Singapore, December 5-7, 2005.

Goodkind, Daniel (1997), “The Vietnamese Double Marriage Squeeze,”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31(1): 108-127.

Hsia, Hsiao-Chuan (2004), “Internationalization of Capital and the Trade in

- Asian Women: The Case of 'Foreign Brides' in Taiwan," in Delia D. Aguilar and Anne E. Lacsamana (eds.), *Women and Globalization*, Amherst, NY: Humanity Books, 181-229.
- Jacobs, Jerry A. and Teresa G. Labov (2002), "Gender Differentials in Intermarriage among Sixteen Race and Ethnic Groups," *Sociological Forum* 17: 621-646.
- Kim, Doo-Sub (2004a), "Missing Girls in South Korea: Trends, Levels and Regional Variations," *Population* (English edition), Vol. 59(6): 865-878, Institute National D'études Démographiques, Paris.
- \_\_\_\_\_ (2004b), "Le déficit de filles en Corée du Sud: évolution, niveaux et variations régionales," *Population* (French edition), Vol. 59(6): 983-998, Institute National D'études Démographiques, Paris.
- \_\_\_\_\_ (2005), "Theoretical Explanations of Rapid Fertility Decline in Korea," *The Japanese Journal of Population* 3(1): 2-25, National Institute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Research, Japan.
- Kim, Doo-Sub and Jung Min Kim (2005), "Endangered Korean Minority Society in China: Recent Socio-demographic Changes in the Yanbian Korean Autonomous Prefecture,"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12(1): 81-98,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 McDonald, Peter (2000), "Gender Equity in Theories of Fertility Transiti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6(3): 427-440.
- \_\_\_\_\_ (2002), "Sustaining Fertility through Public Policy: The Range of Options," *Population* (English Edition) 57(3): 417-446, Institute National D'études Démographiques, Paris.
- Moran, Rachel (2001), *Interracial Intimacy: The Regulation of Race and Romance*,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Piper, Nicola (1999), "Labor Migration, Trafficking and International Marriage: Female Cross-Border Movements into Japan," *Asian Journal of Women's Studies* 5(2): 69-99.
- \_\_\_\_\_ (2003), "Wife or Worker? Worker or Wife? Marriage and Cross-Border Migration in Contemporary Japan," *International Journal of Population Geography* 9: 457-469.

- Piper, Nicola and Mina Roces (eds.) (2003), *Wife or Worker? Asian Women and Migration*, Lanham, MD: Rowman and Littlefield Publishers.
- Qian, Zhenchao (1997), "Breaking the Racial Barriers: Variations in Interracial Marriage between 1980 and 1990," *Demography* 34: 263-276.
- Romano, Renee C. (2003), *Race Mixing: Black-White Marriage in Postwar America*,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Root, Maria P. (2001), *Love's Revolution: Interracial Marriage*, Philadelphia, PA: Temple University Press.
- Rosenfeld, Michael J. and Byung-Soo Kim (2005), "The Independence of Young Adults and the Rise of Interracial and Same-Sex Union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0(4): 541-562.
- Salt, John and Jeremy Stein (1997), "Migration as a Business: The Case of Trafficking," *International Migration* 35(4): 467-494.
- Spickard, Paul (1989), *Mixed Blood: Intermarriage and Ethnic Identity in Twentieth-Century America*, Madison, Wisconsi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 Thi, Hong Xoan Nguyen (2005), "Marriage Migration between Vietnam and Taiwan: A View from Vietnam," Presented at the Ceped-Ciced-Ined Conference on Female Deficit in Asia: Trends and Perspectives, Asian MetaCenter for Popula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nalysis, Singapore, December 5-7, 2005.
- Tsay, Ching-Lung (2004), "Marriage Migration of Women from China and Southeast Asia to Taiwan," in Gavin W. Jones and Kamalini Ramdas (eds.), *(Un)tying the Knot: Ideal and Reality in Asian Marriage*, Asia Research Institute,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173-191.
- Wang, Hong-Zen and Shu-Ming Chang (2001), "The Commodification of International Marriages: Cross-border Marriage Business in Taiwan and Viet Nam," *International Migration* 40(6): 93-116.
- Yang, Wen Shan and Ying-Ying Tiffany Liu (2005), "Gender Imbalances and the Twisted Marriage Market in Taiwan," Presented at the Ceped-Ciced-Ined Conference on Female Deficit in Asia: Trends and Perspectives, Asian MetaCenter for Popula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nalysis, Singapore, December 5-7, 2005.

Yu, Kojima (2001), "In the Business of Cultural Reproduction: Theoretical Implications of the Mail-Order Bride Phenomenon," *Women's Studies International Forum* 24(2): 199-210.